

## 통합의 공동체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시기와 경계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의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만,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12~18)

오늘은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이 창설된 지 27년이 되는 날이며 또한 학생운동이 통합된 지 6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난 27년 간 즉 해방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독교학생운동은 그야말로 역사의 격동

기 속에서 자라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격동기를 말로 표현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실지로 학생운동에 종사한 교계 지도자들이나 학생들의 경험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말로는 이루다 할 수 없는 형극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직접 학생운동에 가담해서 일한 경험은 없지만 이 일 때문에 수고한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고통을 늘 옆에서 보고 듣고 하던 사람으로서 때로는 회의적인 눈으로도 보고 때로는 격려를 받은 일도 있고 때로는 그 용기와 끈질긴 진취력에 감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언간 27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역사를 지나고 보니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한국의 기독교학생운동을 회상하고 그 앞날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며 기도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교회와 복음의 발전을 살펴보면 복음의 씨를 뿌릴 때와 그 씨에서 봉오리가 생기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도 언제나 시련과 고난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굳이 자라는 것을 볼 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실에서 자라난 화초라면 몰라도 매지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식물은 언제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만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진 비바람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무정한 인간의 발꿈치에 짓밟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학생운동도 이러한 시련 속에서 오늘도 성장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거센 풍파 속에서도 쉬지 않고 생명의 법칙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은 그 시초부터 조직과 활동의 목적을 「학원과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거하며 인간을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화해 사업을 추진하여 교회의 일치를 상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오

늘도 이 사회 안에 현존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뭉친 KSCF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수하며 자라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해 온 이 기구의 통합 여섯 돌을 맞이하게 된 오늘날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우리는 통합이라는 것을 단순한 기구의 통합이라는 입장을 떠나, 나와 공동체의 통합, 자아 의식의 통합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인간화(人間化)라는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인격의 통합, 다시 말해서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의 통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개인과 공동체와의 역동적인 상호관계가 단절되거나 어느 한 쪽이 극단으로 치우칠 때에 거기에서는 개인의 소외, 또는 집단적인 권력의 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과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소외 현상에서 현대 사회와 개인의 부조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한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서술한 서한입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베소의 옥중에서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던 그리스도의 증으로 자처하는 바울이 옥중에서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한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단히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 서한을 옥중서간이라고도 합니다만 그가 제 1장에서, 특히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자기의 옥중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되는 길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당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

라(14절)]

즉 자기의 투옥됨을 계기로 여러가지 의혹과 불신에 말려들었던 형제들 사이에 상호 신뢰가 생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좋은 의미로 성도들간의 참된 통합을 토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이런 좋은 국면만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로, 바울의 매일에 괴로움을 더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전파에 순전치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바울의 투옥이 결과적으로는 선의의 지도자와 악의의 지도자를 낳게 했습니다. 선의의 지도자들은 사랑으로 하지만 악의의 지도자들은 다툼과 허세로써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악의의 지도자들에게도 섭섭함을 표시하거나 그들의 허세를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진심이든지, 허세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어지면 자기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결함이 엿보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면 그가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악의의 전도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며 아무 일에든지 두려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만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열망의 빙거(憑據)가 되며 당신들에게도 구원의 빙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후 60년대의 빌립보에서 생겨난 일과, 오늘 우리가 선교에서 당면한 현실에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분쟁과 투기, 악의의 전도자들 때문에 받는 참된 공동체의 고난, 이것은 이방인이나 반그리스도 세력의 위협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이러한 세력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이바지하는 한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겸손한 태도로 맞

이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믿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자로서의 자세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철저한 겸손입니다. 그것은 비굴한 굴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을 받고 나타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겸손이었습니다.

하인리히 뵐의 「휴가병 열차」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안드레 아르가 술취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결국 인간은 악마나 사탄보다 더 교활하다. 왼 뺨을 때린 악마에게 바른 뺨을 내면 사람은 사랑이나 겸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과 아부하는 심정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인간은 뺨을 때린 악마보다 더 교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며 그를 증거하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허세나 안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겸손이란 결국 비굴과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한 바울은 여기에서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박은 자기 확신, 그리고 겸손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생활에서 받은 오해와 투기, 그리고 비방 때문에 우울해 하지 말고 낙천적인 감정을 가지고 언제나 꿈과 소망을 잃지 말고 늘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 끝에 대단히 격렬한 어조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개들과 행악자들, 그리고 손할례당을 삼가라(Look out, Beware)」 여기서 <개들>이라고 부른 것은 결코 동물인 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당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던 유대교인들,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늘 뒤를 따라다니며 남의 비밀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낯선 사람들을 보면 으르렁대기도 합니다. 눈 앞의 이해 관계를 위해서는 신의나 의리를 저버리고 친한 친구도 배신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행하는 이방인과 유대교 신자들을 바울은 개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나쁜 짓은 도말아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함정 속에 몰아 넣으려고 했고, 조그만 실수라도 찾아내면 관원에게 고발하려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개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언제나 저들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섹스종교를 따르면서 종교적 가치마저 혈연과 지연으로 따지며 족벌을 혼동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신앙을 안한다면 바울도 결코 뒤질 데 없는 자랑스러운 점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팔일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벤자민 겨례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율법의 의해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아무런 자랑스러운 것들이 되지 못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과 같이 생각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얻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육중에 매인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개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지만 저희의 끝장은 멸망이요, 저희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요,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그들은 하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데 끝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맺어진 국수주의적인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그리스도적인 민족주의로 지양하는 태도에서 참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러한 공동체가 하나의 통합을 이루려면 온갖 유혹과 박해와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겨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뻐하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 말하기를 환난 중에서 항상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비천한 중에 거할 줄도 알며, 풍부함에 거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좌절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보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생활을 합니다.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저서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곧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랑, 지나가 버리고 죽은 것에 대한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비존재를 존재로 만들기 위한 신비로운 능력이 되는 것이다. 희망 자체가 현재의 행복이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천대와 모욕을 받은 자, 배고프고 죽는 자를 받아 들인다. 기대는 삶을 행복되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기대 속에서 그의 진 현재를 받아 들이고, 기쁨에서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1969년에 통합의 결실을 보게 된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도 벌써 1955년부터 벌써 14년이란 긴 세월을 거쳐서 통합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온갖 좌절과 실패를 이기고 나서 69년에 드디어 통합을 완성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학원과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과감하게 전진할 것이다』라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의 통합만으로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인격적인 결합,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실성과 사랑, 그리고 종말적인 희망을 함께 가지는 데서 비로소 힘있고 생명있는 통합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된 사람들의 진정한 인격적인 통합과 공동체의 통합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돌을 맞이한 KSCF통합도 오늘의 한국의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현존케 하는 십자가의 통합이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복음에 충성을 다하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목표를 앞에 놓고 우리들은 힘을 합쳐 서로 권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면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1975. 11. 24. KSCF창설 27년 기념예배에서)